



■ 미주개발은행의 한국신탁기금 - 한국·라틴아메리카 간의 새로운 협력의 창

곽재성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세계 5대 지역개발은행의 하나로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1959년에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1,010억 달러로서 지역개발은행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역내 28개 국과 역외 19개 국 등 총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다른 개발은행과는 달리 역내국의 출자 비중(84.1%)이 높다는 점이다. 최대주주인 미국(30%)을 제외해도 수원국의 비중은 반을 넘는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직원의 80% 이상이 라틴아메리카계이다. 다른 한편 역외국(15.9%)중 최대 주주는 일본(5%)이며 독

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국들이 대부분이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2005년에 가입하였고, 2008년 9월 현재 중국이 가입협상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했다.

최근 IDB의 모레노 총재는 IDB가 역점을 두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사업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할 정도로 모레노 총재의 한국사랑은 각별하다. 2005년 10월 총재 취임 이후, 역외국으로서는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2005년 12월)했고, 2007년 10월에는 일본에 앞서 한국에서 최초로 아시아·라틴아메리카 포럼을 개최하는 등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간의 협력 증진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IDB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2005년 3월 가입할 때 출연한 1억 4천만 달러의 신탁기금 때문이다. IDB 가입 이후, 한국신탁기금은 2008년 8월까지 사회적 약자의 자립능력 확충(빈곤감축기금, 5천만 달러), 과학기술 발전, 제도 혁신 및 생산성 향상(지식협력기금, 5천만 달러)과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개발기금, 4천만 달러)을 위하여 약 8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 개발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향후 한국신탁기금 사업은 라틴아메리카 암퇴치 사업 지원, 스포츠 및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청소년 활동 지원과 등 주요 이슈에 집중하여 다각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Luis Alberto Moreno) IDB 총재

첫째, 라틴아메리카 암 퇴치 사업은 IDB의 한국 빈곤감축기금에서 1백만 달러, 미국의 암퇴치협회(SU2C: Stand Up 2 Cancer)에서 1백만 달러, 그리고 멕시코에서 2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협력 사업으로, 우선 멕시코 베라크루스(Veracruz)에서 빈곤층의 암 조기검진 및 예방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암퇴치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향후 이를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본 사업에서 한국신탁기금은 암 퇴치 관련 사전 조사비, 홍보물 제작비, 사후 평가 및 후속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고, 양 지역 간 암 전문가의 교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모바일 의료검진(Mobile-health)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도 도모할 예정이며, 우선 IDB 지식협력기금의 지원으로 Mobile-health 관련 IDB 사업에 한국 컨설턴트를 고용할 예정이다.

둘째, 한국신탁기금은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FIFA와 공동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저소득층 축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빈곤 청소년 지원 NGO를 통하여 24개 라틴아메리카의 길거리 축구 활성화를 위한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청소년 축구팀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및 국가간 축구시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라틴아메리카 간 청소년 축구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여 축구 외교를 강화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셋째, 한국신탁기금 설치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다. 그 중에서도 과테말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산전자등기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한국 소프트웨어 회사가 현지의 IT 및 법률 전문가와 제휴하여 참여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한국 IT 진출의 신기원을 이룩할 예정이며, 전자조달(e-procurement), 전자관세(e-customs), 모바일 banking, 이러닝(e-learning) 사업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개발 경험 및 높은 기술을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IDB의 한국신탁기금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개발 효과성을 증진하고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의 새로운 협력의 창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곽재성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